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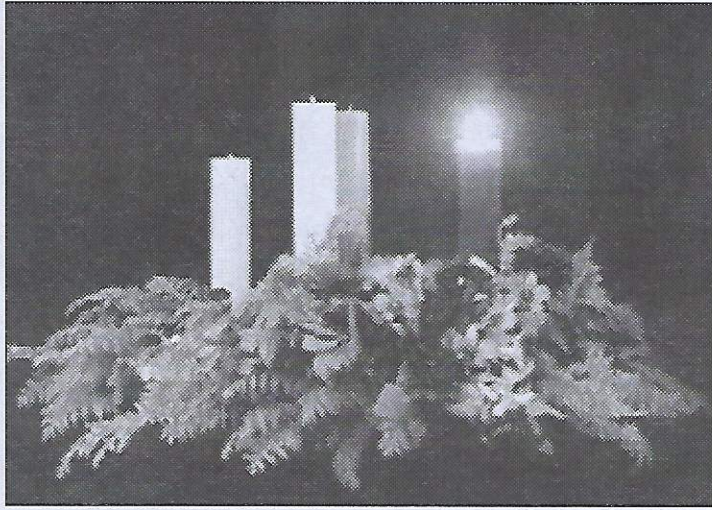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1주일

제36권 1호(다해) 2015년 11월29일

[묵상]



<대림 1주일>

"늘 깨어 기도하여라."

기다림은 우리 일상이다.

너무나 자주, 그리고 많이 기다렸기에 익숙할 만큼 가까이에 있다.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어서 기쁘고, 한이 서려 있어서 슬프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남 그 자체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행복하다.

어린이는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며 살기에 희망적이고,

군인들은 제대날수를 헤아리기에 기쁘다.

해방의 날을 기다렸었고,

민주시대의 그 날을 기다려왔고,

통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습은

기다림이 곧 역사임을 알려 주고 있다.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맞이할 그 날의 기쁨도 클 것이다.

기다림은 준비이다.

준비가 없다면 기다림의 시간은 의미가 없다.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 최병덕 바오로, 이용식 베드로, 이희곤, 최명선 테레사의 조상 & 최경식 베드로의 조상들, 김옥녀 마리아 & 강흔녀 & 이기성 & 박홍순, 김영철 & 박 레이몬드 & 연옥 영혼
	(생)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주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종수 마틴,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고준희 제임스, 최병덕 바오로 & 최호선 안젤라, 후버트 최, 진은란 아네스, 홍현태 요셉, 이우천 스테파노, 이사범 로벨토 & 이안드레아, 장석천 요셉, 최창용 스테파노 & 정점례 올리아나, 민기남 모니카, 김효근 베드로 & 오기화 이사벨라, 김계성 아가다 & 박희성 테레사, 신현태 & 이효희 마리아, 정발바라 & 장유리안나 & 박태이벳, 현시영 요셉, 박문규 프란시스코 & 최옥선 클라라, 이강희 & 윤일 요한 & 박덕기 카타리나
	(생) 서성용 베드로, 황윤재 베드로, 황옥순 막달레나, 토런스 북구역 가정들, 엄영숙 마리아, 민원희 안나, 조화숙 안젤라 홍석인 체칠리아, 김앤디 안드레아, 이행자 리드비나, 이재용 안드레아, 정혜경 카타리나, 이영석 베네딕토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야(Jeremiah) 33,14-16

화답송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제 2독서 테살로니카 1서(Thessalonians)3,12-4,2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음 루카(Luke) 21,25-28.34-36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한국 교회의 역사

1-2. 교회 창설 과정(1770~1784년)

그는 세례를 받고 나서 천주교 책들과 성물을 가지고 1784년 봄에 귀국하였다.

이승훈은 가져온 서적의 일부를 이벽에게 넘겨 주었다. 이벽은 몇 개월 동안 이 책들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승훈과 함께 친척과 친지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벽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년) 형제들을 찾아가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덕망이 높은 권일신(權日身, 1742~1792년) 등을 입교시키는 한편, 김범우(金範禹, ?~1786년)를 비롯한 중인(中人)들에게도 전교하였다.

1784년 9월(음력) 이승훈은 서울의 수표교 부근에 있던 이벽의 집에서 이벽에게 세례를 주었다. 여기에서 한국 교회의 출발점이 마련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결속된 복음 선포 기능을 수행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 또는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가 출발하게 되었다.

2. 초기 교회사의 전개(1784~1876년)

2-1. 초기의 신앙 공동체(1784~1801년)

교회 창설 직후 복음 선교에 앞장선 인물로는 이승훈, 이벽, 권일신이 있다. 권일신의 제자인 이존창(李存昌, 1752~1801년)은 충청도 내포(內浦) 지방에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전주에서는 유항검(柳恒儉, 1756~1801년)이 신앙을 전파해 갔다. 이 밖에도 많은 신자들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여 이를 기쁘게 실천하면서 교회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힘을 바쳤다.

이렇게 출발한 우리나라 천주교회는 창설 직후부터 탄압에 직면하게 된다. 1785년 봄, 형조(刑曹)의 관리들은 서울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적 모임을 하고 있던 신자들을 검거하였으나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양반인지라 방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형조는 양반의 범 죄를 다스릴 수 없었다. 그러나 함께 체포된 신자 가운데 중인 출신인 김범우는 고문을 하고 유배를 보냈다. 귀양을 살던 김범우는 고문 받은 상처가 악화되어 죽었다.

< 계속 >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30	124	125
봉헌	255	264	264
성체	303	279	279
파견	425	130	124

영원을 향한 기도

혜화동 신학교 교정을 걷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장 투석을 마치고 휠체어에 앉아 신학교 언덕을 오르는 노사제(老司祭)를 보았습니다. 달려가 인사를 드리고 휠체어를 밀어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신부님을 돕던 직원에게 신부님은 “신부 휠체어는 신부가 미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원로사목자들의 숙소인 지혜관으로 향하는 길은 나무가 무성했습니다. “역시 나무는 느티나무야!” 하시고는 젊은 날 학교에 나무 심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한창 푸른 느티나무를 보며 사제이자 교육자로 사셨던 당신의 좋았던 시절을 그리셨을까요. 저는 담장 곁에 조금 쓸쓸히 서있는 작은 향나무가 신부님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혜화동 성당의 삼중 소리를 들으며 신부님을 지혜관 식당에 모셔 드렸습니다. 헤어질 무렵 신부님은 이전 공동체에서 몇 년을 함께 살던 제게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위령 성월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의 때, 대림 시기의 첫날을 맞은 오늘, 노사제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시메온과 한나를 위로하셨던 하느님의 은총이 허락되기를 빕니다.

(루카 2,25-39 참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나에게는 시간이 넉넉하다’는 생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하느님의 영역이며 덤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일’깨어 기다리는 은총의 시간은 은총이자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하느님 자비의 시

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덮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루카 21,34)

인간적인 연약함을 매 순간 온몸으로 봉헌하며 하느님께 나아가는 노사제의 모습 속에서 조심스레 미래의 제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 함께 맞이할 ‘그날’을 위해 바오로 사도의 권고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거룩한 백성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1테살 3,12-13 참조)

주님의 성탄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란 기다림이요, 완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자, 영원을 향한 기도입니다. 다시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꾸준한 기도와 선행으로 하느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날로 자라고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 하여라.”(루카 21,36)

◆ 유환민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차장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손석 스테파노	해설자	곽수진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정인욱 아오스딩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진수 스테파노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3반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은 대림 제1주일, 대림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재림할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대림(待臨)'은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Adventus)'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천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례를 통하여 매년 되풀이함으로써,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새롭게 기념합니다. 교회는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다해'의 전례주기를 따르며, 첫번째 대림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17일(목)

- 참회예절 : 오후 7시
- 고해성사 : 오후 7시30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 시기 중(대림1주부터 매일)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 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대림판공성사 출장관계로 평일 미사 시간을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2월15일(화) 미사 없음
- 12월16일(수), 17일(목)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

◆ 추수 감사절 연휴 휴강

- 오늘주일(29일)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의 수업이 없습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평소대로 봉헌합니다.

◆ 성탄맞이 대청소와 카펫클리닝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전교우 대청소: 12월 13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친교 점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장/반장, 게시판 안내 참조
- 카펫클리닝 : 14일(월), 15일(화)
- 문의 : 김준 방지거 소공동체부장 ☎(310)625-3312

◆ 대추판매

오늘(29일) 미사 후에 울뜨레아 및 주일학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맛도 좋은 대추를 판매합니다.
많은 성원부탁 드립니다.

◆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 헌금

12월 첫주일은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매달 첫주일에 봉헌하는 자선헌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교우들께선 따로 마련된 봉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29일 * 토동2,3반 : 소고기 우거지 된장국 (\$3)
* 주일학교 : 추수 감사절 휴강
- 12월 6일 * 소공동체 : 김밥(\$4), 컵라면 (\$2)
* 주일학교 : 짜장밥 (3학년)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미순 강태홍 김성현 김양금 김영덕 김영숙 김 욱 김인성 김정선 김종훈 김찬구 김형순 김효진 박정자 안종연 오수인 유경자 육근주 윤분아 이민상 이은록 이재정 이태옥 이현주 이형삼 이효세 임 순 장영진 최원석 최태훈 현석주 황인종	강미순 강태홍 김양금 김영덕 김영숙 김 욱 김효진 박정자 안종연 오수인 유경자 이민상 이은록 이재정 이현주 이형삼 이효세 임 순 장영진 최원석 최태훈 황인종
합계:\$6,710	합계 : \$2,390
주일미사 헌금 :\$2,788	감사헌금: \$500(박이레네, 한기웅) 환불: \$120

◆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매년 주일학교 행사로 진행되었던 성탄 예술제를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본당 규모의 이벤트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 겨울페스티벌은 전 신자 분들을 초대하며, 103위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연과 함께 여러 가지의 재미있고 알찬 부스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부스들과, 타 단체 홍보 부스, 그리고 어른 분 들만을 위한 부스도 마련할 예정이니, 본당 신자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날짜: 12월 19일 토요일
- 시간: 오후 5시 - 오후 10시
- 장소: 103위 성당 친교장
- 가격: FREE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LA 콜롬바의 집에서 인보 성체수도회 수도자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지내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장소 : 248 S. Mariposa Av. L.A. 90004
- 담당: 공 데레사 수녀
- ☎ 213-389-7760 / 213-785-1147

◆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안내(9개월간)

- 일시 : 2015년 9월 ~ 2016년 6월
- 주관처 : Loyola Institute for Sprituality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 (213) 507-1144

◆ 타성당 판공성사일정

- 12월 7일 : 평화의모후성당
- 12월 9일 : 순교자성당
- 12월 10일 : 성요셉성당
- 12월 11일 : 성아그네스성당
- 12월 14일 : 성토마스성당
- 12월 15일 : 성바실성당
- 12월 16일 : 성프란치스코성당, 마태오성당
- 12월 18일 : 성삼성당, 바오로성당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번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베테임 안나 991-4838 11/10(화) 오후 6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김정웅 요한 11/21(토) 오후 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11/20(금) 오후 7시 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 크리스티나 490-9662	김대우 비오 378-8763 11/14(토) 오후 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손석 스테파노 11/14(토) 6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윤선희 로사 11/14(토) 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최옥희 데레사 11/20(금) 오후 7시 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11/17(화) 11시, 성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송 미카엘라 850-2822 11/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정명옥 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최기호 스테파노 11/9(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매종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가타리나 749-3151 11/7(토) 7시
P. V. 남경희 베네딕도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도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1/13(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11/20(금)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김명숙 루실라 11/7(토) 11시 강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11/10(화)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1시
------------	----

124위 시복특집<36> 김계완 시몬 (?~1802년)

‘백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김계완(金啓完) 시몬은 한양의 양인(良人) 집안에서 태어나 약국을 운영하며 생활하였다. 그는 1791년 최필공(토마스)으로 부터 천주교 서적을 얻어 본 뒤 타당한 교리에 이끌려 입교하기로 결심하고, 얼마 후에는 최창현(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 해에 일어난 신해박해로 체포되었다가 마음이 약해져 석방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시몬은 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신앙을 회복하였다. 또 1794년 딸 주문모(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동료들과 함께 주 신부의 거처를 마련하는 데 힘썼고, 동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교리를 연구하였다. 그는 종종 주 신부를 방문하여 성사를 받거나 그의 복사가 되어 교회 일을 도왔다.

1800년 12월경 토마스가 체포되자, 시몬은 김연이(율리안나)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이어 다음해 초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되어 신자들의 문초 과정에서 우연히 그의 이름이 튀어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포졸들은 사방으로 그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그는 김연이의 집을 빠져 나와 이곳 저곳으로 피신해 다녔다.

그러는 동안 시몬의 늙은 아버지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또 시몬도 가족들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 저기로 다니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이윽고 문초와 형벌이 시작되자, 김계완 시몬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깊이 믿어온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고 하면서 “비록 늙으신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께 대한 효보다는 천주께 대한 효가 더욱 중요하므로 아버지를 돌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문초가 계속될수록 시몬의 신심은 더욱 굳어져만 갔다. 관장과 형리들은 ‘더욱 굳게 교리를 실천하기로 다짐하였다’고 진술하는 그를 보면서 어안이 병병할 뿐이었다. 이후 그는 형조로 압송되었고,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문초와 형벌을 받은 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2년 1월 29일(음력 1801년 12월 26일)이었다.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그는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을 하였다.

“저는 무식한 백성으로 천주교에 깊이 빠져 여러 해 동안 신봉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형벌을 당하고 있기는 하

지만, 진실로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전례 상식]

대림 시기 전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대림 시기 전례는 복음 안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제1주일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제2, 제3주일의 복음은 요한 세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주일은 요셉에게 한 예고(가해), 마리아에게 한 예고(나해),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다해)에 관한 복음입니다. 제2독서로 읽는 사도들의 서간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보여 줍니다. 그 예언들은 주님이 오실 것과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의 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을 위한 기쁨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길을 찾는 그대에게]

‘깨어있으라’라는 복음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에,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지만 답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 밤이 사라진 현대, 밤을 잃어버린 현대인입니다. 밤새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대리운전, 편의점 같은 새로운 밤일들이 생기면서 밤에도 하얗게 깨어있는 사람들 또한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억지로 깨어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또 있습니다. 손 안에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 된 세상 덕분에, 휴대폰에 대한 애정과 집착은 눈 뜨면서 시작되어, 화장실, 식탁을 거쳐 잠자리까지 이어집니다. 정보와 소식에 깨어 있어야 하고, SNS에 답해야 뉘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기에 깨어있어야 하거나, 더 빠른 정보와 교류를 위해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복음의 요청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는 눈을 떠서 깨어 있지만, 정작 깨어있어야 할 것들에는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일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잠을 내어 잠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때, 진짜 깨어있는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기도묵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영광과 저의 구원을 위해 저의 건강과 질병, 저의 생명과 죽음을 자유로이 이용하시기를 청합니다. 당신만이 제게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 블레즈 파스칼 -

하느님에게 힘을 선물로 받은 삼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 편안한 삶을 살게 되자 다시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초르아 출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무엇이냐 말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기 13,1-25

드디어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습니다. 삼손은 어른이 되면서 나귀의 턱뼈 하나로 필리스티아 사람 천 명을 상대할 정도로 힘이 세졌습니다. 그 후 삼손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러다가 삼손은 어떻게 힘을 잃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기 15,9-16,22

힘이 빠진 삼손은 필리스티아 군사에게 붙잡혀 혹독한 복수를 당합니다. 힘센 용사였던 삼손도 여자의 꾀에 빠져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지요. 삼손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제사를 바치기 위해 한테 모였는데 그들은 삼손을 끌어내어 갇은 조롱을 다 퍼붓고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 준 소년에게 무엇이냐 부탁했나요? 그리고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기 16,23-31

삼손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힘을 내어 집을 무너뜨리며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수많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죽고 삼손 자신도 신전에 깔려 최후를 맞습니다. 삼손은 힘이 강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힘과 능력, 재주는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나한테 ()을 하는군요. 무엇으로 묶으면 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내() 일곱 가닥을 베를 날실로 뿜아 ()에 매고 벽에 박아놓으면, 내가()여느 사람처럼 된다고.”(판관기16,13)

“주 하느님, 저를()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다시()을 주십시오. 하느님, 이 한 번으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저의 두 눈에 대한 ()를 하게 해 주십시오.”

(판관기16,28)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썬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미리암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쟈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